

한·미FTA 비준안 일단 연기

무등산에 '노무현 길' 생겼다

노무현 재단, 5일 문빈정사앞서 기념 산행대회

與 기습상정 野 반발 처리 못해... 국회 외통위 산회

한나라당이 2일 자당 소속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기습 상정과 함께 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12시께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약 2시간 가량의 예산안 토론이 끝날 즈음, 남 위원장이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승강기가 시작됐다.

남 위원장은 "오늘 오후에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해 토론하되 토론과 의결을 분리하고 그 사이 최소한 한 시간의 정회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토론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의장 잡기를 풀고 전체회의장으로 향하는 문을 오후 2시까지 열도록 시간을 드리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이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야당 간에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의 표결을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남 위원장이 앉은 의자로 몰려와 남 위원장을 둘러싸고 의사진행을 막았다. 이들은 "정 하고 싶으면 날치기하라", "산회하라"고 항의했다.

이날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이뤄진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날선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한나라당 구내 식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당 대표실에서 하라, 왜 여기서 하느냐"고 비꼬았고 남 위원장은 "여권 외통위 회의실이지, 식당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남 위원장은 의사진행이 불가능하

자 여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에게 토론에 관한 의사권을 넘겼으나 야당이 토론에 응하지 않자 오후 2시40분께 정회를 했다. 정회 중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동 후 황 원내대표는 "내

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남 위원장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 위원장은 오후 6시18분께 전체회의의 산회를 선언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도 이날은 일단 무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일 국회 외통위 회의실 입구에서 한미 FTA비준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실을 봉쇄하려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야당 보좌관들이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오는 5일 오전 광주 동구 윤립동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에서 '무등산 노무현 길 지정 기념' 전국 산행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노무현 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산행대회에는 관양속 여사와 강은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노무현 재단 각 지역위원회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산행코스는 문빈정사를 출발

해 당산나무와 종머리재를 거쳐 장불재 탐방로까지 3.5km 구간이며, 도착점인 장불재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무등산 산행에서 남긴 연설 다시 듣기와 풍선 날리기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산행 구간마다 당시 노 대통령이 산행하던 당시 이야기를 소개하는 '산행 스토리' (총 8편)가 펼침 막 형식을 통해 공개돼 산행의 의미를 더 해줄 것으로 기대

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무등산 15개 법정탐방로 가운데 증심사~당산나무~종머리재~용추삼거리~장불재 구간을 무등산 노무현 길로 지정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이 담겨있는 탐방로가 지정된다는 점에서 무등산의 역사문화 관광자산에도 좋은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30세대 84% "이해관계 대변 정당 없다"

특임장관실, 설문조사

짧은 세대 대부분은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일 특임 장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당제도의 실효성 의문' 38.5%, '정쟁만 키운다' 29.1%, '자신의 이해와 무관하다' 27.7%로 조사됐다.

조사는 특임장관실이 지난 6~7월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에게 의뢰해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젊은 세대 1202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또 20대의 43.6%, 30대의 41.4%가 투표 행위를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투표에 불참하는 이유에는 '정치에 대한 실망' 17.1%, '효력 의문' 17.1%, '선거이슈에 흥미 없다' 13.0%, '선거에 대한 무관심' 11.7%로 조사됐다.

투표결정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20대의 48.7%, 30대의 42.5%가 정책과 공약을 우선시한다고 답해 후보능력(20대 18.7%, 30대 18.8%)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가장 관심이 높은 선거분야는 20대의 42.1%, 30대의 42.9%가 경제라고 답했고, 복지(20대 20.7%, 30대 20.5%), 교육(20대 16.5%, 30대 15.9%), 정치(20대 13.4%, 30대 13.8%) 순이었다. /연합뉴스

류우익 "이희호여사 방북 성사시킬 것"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여사가 90세이고 인도적 지원의 상징적 효과도 크니 방북 조기승인이 어떨까"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을 받고 "분위기가 마련되면 이 여사의 접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지가 아주 좋고 인도적 지원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기획을 한 데 대해 주

무장관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방북 승인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기에 상응한 품격과 예우를 갖춰 방북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북한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경우 좋겠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회원들과 함께 3~4세용 어린이 모자 1만개를 짜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 '민주당 도청 의혹' 무혐의 결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적자, 녹음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도청당했다며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여수-대명리조트 사업기념 특별회원 한정모집!

국가적 사업! 대명그룹도 힘 보탠다!

대명리조트에서는 이번 여수 세계박람회단지내 민자호텔유치 성공기념으로 회원권 하나로 골프, 스키, 오션월드, 아쿠아월드와 전국 10여개지역의 리조트를 언제나 별장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수사업 착수 기념 특별회원'을 한정 모집한다. 주 5일근무제 변화에 발맞춰 고객의 입장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혜택과 실용적인 서비스를 위해 준비된 국내 최초의 '통합 리조트멤버십' 회원권을 모집한다. 회원권은 골프, 스키, 오션월드 및 각 지역 아쿠아 시설의 무료 및 할인혜택이 부여되며 가입과 동시에 전국의 대명리조트 8곳(설악, 경주, 양평, 흥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지역리조트와 2곳의(해운대, 도고)체

인콘도 및 흥천, 설악 퍼블릭 골프장을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4곳의 호텔 및 제주 크라운CC, 제주 제피로스 CC, 제주 에코랜드 CC, 경북예천 한맥 CC를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범인회원을 위한 세미나실, 연회장, 각종 부대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비즈니스에도 활용도가 높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위치한 대명리조트 거제(2013년 오픈예정)가 착공에 들어가 있고, 2012년 해양엑스포가 열리는 여수에도 대명리조트 여수(2012년 오픈예정)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 최고수준의 4계절 종합 해양 리조트로 탄생할 예정이다. 본사 : 02-2052-0001

여수-대명리조트 2012년 3월 오픈예정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님들의 일을 다시 한번 기립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음.10. 3) 우리의 개국일은 개천절과 일본의 국경일인 명치절이 겹친가운데 한국학생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민족적鬱鬱을 갖게된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의거이며, 3. 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해방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기념하여 이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학생들은 이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웠습니다. 6·10만세와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모든 나날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존재해 희망차게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 남들을 위해 고개숙여 다시 한번 지난 그날들을 상기에 봅시다.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불대학교

초당대학교

한국학원목포시총연합회

목포가톨릭대학교

동아인재대학

목포과학대학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